

세계 인권의 날 탈북자 패널 토론 전문  
Tom Malinowski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  
Robert King 북한인권특사

2014년 12월 10일  
국무부  
워싱턴 D.C.

**KING 특사:**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함께 해주신 인권활동가들과 해외 공관에서 오신 분들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톰 말리노스키 차관보께서 참석해 주셔서 행사의 중요성을 더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관보께서는 조금 후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1948년 12월 10일은 바로 유엔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날입니다. 2년 후, 같은 총회에서 12월 10일을 세계 인권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그 후, 매해 12월 10일이면 유엔을 비롯해 각국 정부, 의회, 인권 단체와 전 세계 사람들은 이곳 국무부에서 개최하는 것과 비슷한 행사를 통해 12월 10일에 세계 인권의 날을 기념합니다. 오늘 오전 오슬로에서 노벨상 시상식이 있기도 했는데, 매년 세계 인권의 날에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북한이라 부르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의 인권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세계 모든 국가를 통틀어 최악의 인권 침해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두 해 전, 이코노미스트는 167개국 인권 기록에 대한 계량적 순위를 매겼는데, 북한은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북한의 인권 실태에 주목함으로써 진척이 있긴 했습니다. 올해는 이미 많은 분들이 읽은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되었고, 북한에서 체계적이며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어 왔고 현재도 진행 중이며, 일부는 국제법에 따른 반인도적 범죄의 증명을 위해 필요한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결과가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발표 후, 47개 참가국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을 강력히 비판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47개 참가국 중 찬성 30표, 반대 6표, 그리고 기권 11표로 승인되었습니다. 4월에는 안보리의 아리아 방식의 회의에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참가국과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였고,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13국가에서 그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9월에는 유엔 총회에 참석한 국가 수장, 외교장관의 고위급 회의와 연계하여 뉴욕에서 북한 인권 관련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 자이드 유엔 인권 이사회 최고대표,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 등이 그 행사에 참석했으며, 이 밖에도 정치범 수용소를 탈출한 탈북자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11 월 3 일, 11 월에는 유엔 총회 제 3 위원회에서 북한 인권을 비판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유엔 안보리와 국제형사재판소에 문제를 회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찬성 111 표, 반대 19 표, 기권 55 표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결의안은 다음 주 유엔 총회 본 회의에서 고려될 것이며, 비슷한 표결 결과가 기대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중 10 개 회원국이 공식 유엔 안보리 회의를 개최하여 북한 인권 실태를 논의하고 북한 인권을 안보리 의제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북한 인권에 관한 안보리 회의가 이달 말에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 인권의 날을 맞이하여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직접 경험한 두 분의 탈북자의 이야기를 들을 특별한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2007 년 북한을 탈출한 박연미 씨로부터 경험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으며 서울에서 동국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박연미 씨의 이야기부터 듣겠습니다.

**박연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박연미이고, 1993 년 헤산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특권층에서 자랐습니다. 제 가족은 좋은 정치적 배경을 지니고 있었고 북한 노동당원이기도 했기 때문에 북한 체제에서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저는 헤산시나 (들리지 않음) 평양에서 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 두 도시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달랐고요. 헤산은 중국 국경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헤산 사람들은 바깥 세상을 훨씬 많이 접했고, 돈이나 사업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라면서 저는 영화를 많이 봤는데요. 러시아 영화, 할리우드, 중국, 그리고 심지어 발리우드 영화도 봤습니다. 이런 매체는 1990 년대에 북한에 들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WWF 프로 레슬링 경기도 가족과 함께 봤습니다. (웃음.) 가족들이 굉장히 좋아했죠. 그리고 저는 미국인은 다 그렇게 근육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웃음.)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아닌 것 같네요. (웃음.) 네.

**MALINOWSKI 차관보:** 아니 잠깐만요.

**박연미:** 네, 확실히 아닌 것 같네요. (웃음.) 네. 그리고 2002 년쯤 북한으로 밀반입된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이 저처럼 생겨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영화 같은 걸 볼 수 있었던 것은 제 가족이 좋은 인맥을 유지하고 있었고, 어머니께서 불법으로 DVD 장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의 삶은 계속해서 어려워지기만 했습니다. 그 와중에 영화는 그런 역경을 잊을 수 있게 도와 주었습니다. 영화 “프리티 우먼”을 보고 난 후, 줄리아 로버츠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게 기억납니다. 그렇지만 북한 체제는 입는 옷조차 마음대로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들리지 않음)을 만들어 그것들에게 내가 입고 싶은 옷을 만들어 입혔습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이었던 순간은 제가 아홉 살 때 찾아왔습니다. 제 친구의 어머니가 다른 사람에게 DVD 를 빌려주다 보위부에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 당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분은 굉장히 친절하고 가족을 정성스레 돌보는, 매우 평범한 아줌마였고 결코 우리 사회주의 낙원을 붕괴시키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우리 모두 겁을 먹었지만 결국은 다시 영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막으려고 했지만 사실 막기가 힘들어요. 그 사람들도 다 이런 영화를 보고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기근이 들어 사람들이 재산을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이 형성된 것이에요. 정부에서 배급을 중단하자 사람들은 생존할 방법을 찾아야 했던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정부 관료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업으로 중국에 고철을 파셨습니다. 저는 시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위해 거래를 하기 시작하면 자신을 위한 생각을 시작하게 되고, 이것이 전체주의 체제에 큰 위협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2004년에는 제가 알던 삶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 영웅이었던 아버지가 불법 거래 때문에 체포되어 교화소로 보내졌어요. 거기서 구타를 너무 심하게 당해 혼자서는 화장실도 못 가시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범죄 때문에 저희 가족은 감시와 차별을 당했습니다. 더 이상 미래가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머니와 중국으로 탈북했습니다. 처음에 중국으로 간 목적은 언니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도착 한 후, 브로커가 저희를 목표물로 삼았습니다. 그 브로커는 저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제 나이는 그때 13살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만약 말을 듣지 않으면 중국 공안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제 어머니께서 저를 보호하기 위해 대신 자청해서 성폭행 당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나중에 중국에서 저희와 합류하셨습니다. 그때 이미 대장암을 앓고 계셨고 그 후에 곧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들리지 않음)에서 새벽 3시에 아버지를 물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와 어머니는 몽골로 도망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팀에 함께 있던 다섯 명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걷고 기어서 고비 사막을 건넜습니다. 중국 공안과 납치자들과 야생 동물을 피해 가면서요. 저희는 나침반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것이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별들이 저희를 자유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칼을 갖고 여행했는데, 그것은 북한으로 송환되게 되면 자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를 붙잡은 몽골 병사들에게는 제발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말라고 사정했습니다. 저희는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북한을 떠난 후, 제 가족 때문에 친척들이 처벌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서 해고당했고, 다른 분들은 심문과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연락이 닿은 분도 있고, 일부는 아직도 북한에 계십니다. 그분들은 그 지역에 밀반입된 중국 핸드폰을 통해서 저희와 통화합니다. 그리고 브로커 네트워크를 통해 친척들께 돈을 보내기도 합니다. 보통 매년 5천 달러에서 6천 달러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탈북하신 분들과 얘기해보면 북한은 매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제 세대가 바로 변화의 세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모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부모님 세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에서 자랐습니다. 저희는 시장과 외국 매체를 경험했기 때문에 충성심이 덜하고, 더 자본주의적이고 더 개인주의적입니다. 그리고 바깥세상에 대한 호기심도 많습니다. 제 생각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북한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정보와 매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깥세상에 대해 배우고 다른 생각을 배울 수 있도록 말입니다. 또 중국에 있는 북한 사람들(1236)과 특히 북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북한 여성들이 팔려 가고 폭행 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명의 남자들이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동물 같은 대우를 받고 있어요. 그런 처우를 받아 마땅한 여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여자들을 보호해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이런 불의로부터 구해 줄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은 인권의 날입니다. 어디에 살든 모든 인간에게는 인권이 있다는 사실을 근본적으로 발표한 사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생각이지만, 저희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저희가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저희는 인권을 다 누리지 못한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저희 모두에게는 북한이 변화하고 열리도록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면 북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마땅히 주어진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KING 특사:** 연미 씨,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2006년 북한을 떠난 조셉 김의 이야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조셉 씨.

**조셉 김:** 조금 떨리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눌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이것에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북한에 있는 수백만 명의 북한 사람들이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1990년 함경북도, 중국 국경과 가까운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가족은 늘 빈곤으로 고생하는 처지였지만 두 남매 중 막내이자 남자였기 때문에 항상 가족의 사랑과 돌봄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대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저와 누나는 쌀감을 찾기 위해 새벽 5시에 나갔다 자정이 지나서야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길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먹을 것을 찾아다녔는데, 엄마 등에 업힌 꼬마 아이가 과자를 먹는 모습을 보고 뺏고 싶다고 생각했던 게 기억납니다.

굶주림은 굴욕입니다. 굶주림은 절망입니다. 제가 아홉 살이 되던 생일에는 부모님이 제게 아무런 음식도 못 주셨습니다. 그래도 나이는 어렸지만 부모님이 가슴에 품은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기근은 정부 정책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은 비슷한 지리와 기후를 갖고 있지만 결코 기근이 닥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고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굶어 죽었는지 생각하면 정말 슬픔입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북한 정부의 제약이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억압은 제게도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삶에 끔찍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입니다.

제가 12 살이었던 2002년에는 아버지께서 굶주림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점점 말라가다 돌아 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 가신 후, 가족의 상황은 더 열악해졌습니다. 같은 해, 제 어머니와 누나는 중국에서 돈을 벌고 음식을 가져오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 당시 저는 너무 어리고 순진했었습니다. 한순간도 엄마와 누나가 돌아 오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누나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함께 있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누나가 떠날 때 제대로 인사도 안 하고 한 번 안아주지도 않았습니니다. 제 생애 가장 큰 후회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가 누나를 마지막으로 본 때였으니까요.

몇 달 후, 어머니께서 중국에서 체포되어 누나 없이 돌아오셨습니다. 중국에서의 상황이 기대했던 것보다 어려워져 별다른 수가 없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 누나는 어떤 남자에게 팔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머니께서 북한으로 돌아오는 것보다는 나은 삶일 거라고 믿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어머니께서 내리신 결정 때문에 어머니께 손가락질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제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깨달았고, 이로 인해 북한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처절한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북한 어머니들이 이렇게 가슴을 도려내는 힘든 결정을 내려야만 했는지 이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는 집 없는 고아가 되었고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제 일상생활은 매우 어려워졌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졌습니다. 쓰레기통에서 더러운 빵 한 조각을 찾아내는 것이 제 목표가 되었지만, 그렇게 해서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가끔은 먹을 것을 받기 위해 일거리를 찾았습니다. 한 번은 겨울에 두 달이나 지하 33 미터에 있는 광산에서, 전혀 보호 장비도 없이 하루에 10 시간씩 일했던 적도 있습니다. 강추위와 배고픔으로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이면 누나가 다음 날 아침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갖고 돌아올 거라고 상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 희망이 저를 살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매일 스스로에게 상황이 얼마나 어려워지든 죽어서는 안 된다고 되뇌었습니다.

그대로는 더 이상 살아남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여 누나를 찾아 중국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위험한 여정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목숨을 거는 건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아버지처럼 북한에서 굶어죽거나, 아니면 최소한 중국으로 탈출해서 더 나은 삶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2월 15일에 중국으로 탈북했습니다. 중국에는 음식이 많으니까 살기가 훨씬 편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삶은 오히려 북한에 있을 때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자유롭지 않았으니까요. 항상 잡혀서 북한으로 송환되는 건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기적같이도 몇 개월 후,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위한 비밀 보호소를 운영하는 분을 만나게 됐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규칙적으로 끼니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해, 그

해 말에 한 활동가께서 중국을 떠나 북한 난민 자격으로 미국으로 갈 수 있게 도와 주셨습니다.

저는 미국 정부에 항상 고마워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저와 같은 북한 난민에게 미국에서 정착하고, 나아가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에게 자유란 원하는 대로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실제적인 기회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여기 온 후, 물론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왔을 땐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으니까요. 처음에는 서브웨이 샌드위치 매장들이 모두 지하철로 연결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웃음.) 지금 돌이켜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웃음.) 그러니까 배울 게 얼마나 많았는지 상상해 보실 수 있겠죠. 이제 벌써 8년 정도, 미국에 온 지 8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뉴욕시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제 이야기를 모릅니다. 제 삶이 이제 얼마나 평범한지 생각하면 저처럼 가족을 잃은 친구들에 대한 기억이 멈추질 않습니다. 저와 함께 북한의 길거리에서 잠을 청했던 친구들이요. 그 친구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뭘 하고 사는지 궁금합니다.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지만 북한 사람들은 여전히 경제적, 정치적 억압으로 인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람들은 여전히 강인하고, 넘어지면 일어서고, 그런 어려운 도전과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있고 더 나은 미래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희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도와 주신다면 북한 사람들의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북한 문제가 미국 정부에게는 까다로운 문제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이야기를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나와서 제 이야기를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KING 특사:** 그 누구도 조셉 씨의 이야기와 미국에 오기까지 겪은 과정을 잊지 못할 거라고 장담합니다. 질문 받도록 할까요?

**MALINOWSKI 차관보:** 네. 먼저 경험을 공유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분의 강인함과 끈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동을 촉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제가 몇 마디 하겠습니다만, 여러분과 청중께 질문 또는 느낌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옆에 마이크가 두 개 있는 것 같네요. 가장 용감하신 분부터 질문하시면 다른 분들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 분이 계시네요. 어떻게... 아니면 무선 마이크가 있나요? 누가 줌... 네.

**질문:**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셔서 경험하신 바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많지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두 분과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으로서 북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가장 관심 있는 질문이고, 두 분 모두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셉 김:** 일단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에 비춰 말씀드리자면 여전히 중국에서 숨어 지내는 탈북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분들이 외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첫 단계는 일단 질문해 주신 분처럼 이런 행사에 참석하셔서 이슈에 대해 배우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가 더 자주 열리고 있어서 기쁩니다. 행동이나 실천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사이트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탈북자들을 도와 주는 단체인 “리버티 인 노스 코리아”(LiNK)라는 단체도 있죠. 사실, 제가 링크 설립 후 처음으로 그 단체를 통해 탈출한 사람입니다. 그게 한 방법일 수 있겠고, 박연미 씨나 킹 특사께서도 좀 더 심층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박연미:**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재능이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돈이 많으면 물론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구할 수 있죠. 그렇지만 만약 기술자라던가 컴퓨터를 잘 한다면 북한에 정보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해 볼 수도 있겠죠. 또 학생이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나 지금 당장 아무것도 못한다면 친구들이랑 캠페인을 통해 후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친구들에게 북한의 소식을 알려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가진 재능에 따라 할 수 있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잖아요. 정말 뜻이 있다면, 물론 그럴 거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마다 각기 북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세요. 질문 감사합니다.

**MALINOWSKI 차관보:** 감사합니다. 저쪽이요.

**질문:** 조셉 씨, 연미 씨, 안녕하세요. 두 분의 경험담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조셉 씨의 이야기 중 제가 몰랐던 사실도 있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경험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가벼운 쪽으로 주제를 돌려볼까 합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인터뷰”라는 영화가 곧 나오는데, 소니가 해킹 당한 후로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어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미 씨, “타이타닉”과 같은 영화를 봤던 게 영향이 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만일 이 영화가 USB 나 DVD 등을 통해서 북한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면,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 제가 듣기로는 김정일의 머리가 터진다고 하는데요. 이런 장면을 영화에서 보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특히 젊은 층에 어떤 변화를 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영화의 유머 코드가,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일부 아이들이 보기에는 적절치 못할

수도 있겠지만, 미디어와 영화는 북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이제 곧 출시될 이 영화에 대한 두 사람의 의견인데요. 많은 탈북자와 저도 영화를 보고 싶어하는데요. 한국에서는 개봉되지 않는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많은 단체와 탈북자들이 이 영화를 어떻게 구해서 북한으로 보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조셉 씨, 연미 씨 모두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연미 씨와 조셉 씨를 비롯해 여러 탈북자들, 그렇지만 특히 박연미 씨께서는 페이스북이나 인터넷에서 많은 공격을 받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페이스북에서 그런 악플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느낌을 압니다. 다만 희망을 잃지 말고, 그 사람들의 말 때문에 우울해지지 말라고 부탁드립니다. 두 분은 자유를 찾아 강까지 건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식한 사람들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온라인으로 어떤 말을 하든, 진지하게 받아 들이지 마세요.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목소리가 없는 이들의 목소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페이스북을 할 것이고, 김정은은 곧 죽게 되겠죠. 감사합니다.

**MALINOWSKI 차관보:** 답변하시겠어요?

**박연미:** 네, 감사합니다. 첫 질문과 관련해서는 제가 아직 그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한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본다면 엄청난 반향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들리지 않음) 또는 친애하는 수령님을 숭배하면 김정은이 (들리지 않음) 신으로 선택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김정은을 죽이려는 장면을 보거나 김정은에 대해 농담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감히 저런 상상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는 젊은이들이 그런 걸 굉장히 멋지다고 받아 들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 봐야죠. 그리고 제가 영화를 아직 못 봐서 그 부분은 물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언급하신 점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에 대한 큰 기사를 봤는데, 제가 어떤 면으로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그렇게 나쁜 국가가 아니다, 그런 말이 있는데,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들리지 않음) 북한의 상황에 대해 그런 기사를 내는 건. 그리고 북한 정부는 당연히 저를 하나의 목표물로 삼고 제가 진실과 북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못하도록 제지하려 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굉장히 큰 도전과제이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슈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리지 않음). 네, 정말 어려워요. 그 이상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여기에 여러분들이 모여있고,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언제까지나 진실을 말할 거예요. 언젠가는 북한이 문을 열게 될 테고, 그러면 우리는 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북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감내했는지. 감사합니다.

**조셉 김:**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외국 영화를 볼 기회가 별로 없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비유를 해 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북한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을 때, 목숨을 걸기로 결심한 가장 큰 동기는 중국에 가면 먹을 게 더 많다는 거였습니다. (전화벨 소리) 죄송합니다. (웃음.) 북한에 있을 땐 이런 게 없어서... (웃음) 그래서 중국에 먹을 게 더 많다는 작은 사실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목숨을 걸 수 있을 정도로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그런 정보가 사실이라면 제 경우처럼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영화는, 그 영화 뿐만 아니라 북한에 흘러 들어 가는 모든 정보가 북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할 것이고, 그런 정보가 빨리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 이슈에 대해 물심양면으로 지지해 주시는 점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차관보님의 글을 페이스북으로 즐겨 읽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저희를 위해 계속 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오늘 와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 배가 고파서, 그리고 물질적으로 부족해서 탈북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세뇌 교육과 친애하는 수령에 대한 개인숭배 사상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셉 김:** 먼저 저는 제가 세뇌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돌이켜보니 제 삶이 단순히 (들리지 않음) 그랬던 건가. 죄송합니다. 지금 굉장히 긴장되는데요. 질문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말...

**질문:**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서양의 정보, 서양에서 나오는 정보가 북한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 들었는데, 다시 묻자면, 실제로 북한은 얼마나 폐쇄된 사회인가요? 친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세뇌교육과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얼마나 효과적인가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변화가 있는지요? 북한 사람들이 서양과 북한 정권에 대한 더 정확한 정보를 받고 있습니까?

**조셉 김:** 네, 친절하게 질문을 반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탈북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연미 씨와도 이야기해 본 결과, 북한은 실제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 정치, 경제가 모두 어떤 면에서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영화와 정보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 것이 북한 주민들이 더 독립적으로 변모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끌리는 부분이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변화가 더 과감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외국 미디어를 보고 그것에 노출되어서 세뇌 당한 부분과 선전 등이 깨끗이 씻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에 제대로 답변 드렸기를 바랍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박연미:** 네, 질문 감사합니다. 북한의 세뇌 공작은 효과가 있고 아직까지도 저도 개인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입니다. 제가 북한을 탈출했지만, 그리고 자유로운 국가인

대한민국에 있을 때도 여전히 김정일, 북한의 그 독재자가 제 생각을 읽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이 좀 모순적인데요. 왜냐하면 “타이타닉”과 “007” 이런 영화들을 다 봤는데, 그래도 정말 그렇게 믿거든요. 이런 영화가 문화, 직설적 표현, 자유 (들리지 않음).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김정일의 힘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그랬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영화에서 뭔가를 보면서도 김 씨 일가의 지도력의 힘을 믿어왔던 게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건 굉장히 장기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북한은 이미 변화했고 그런 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이십 년 동안 해외 매체들이 북한으로 유입되었고, 특히 젊은층에서는 특히 그런 문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스스로 인지하지도 못하겠지만, 그들은 체제에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체인을 걸고 염색도 하고, 노래도 불러요. 사랑 노래, 힙합, K-pop 음악 모두다. 그리고 한류에는 정말 환장합니다. 그게 정권 숭배에 반대되는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불복종인 거죠.

하지만 북한에서는 (들리지 않음) 심각한 변화입니다. 전에는 북한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수난을 겪었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받아들였던 것은 북한 정권이 보살펴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세대는 훨씬 더 개인주의적이고 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잘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경제나 정치, 민주주의 이런 큰 그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저희는 그런 게 뭘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런 체인을 나도 걸고 싶다,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첫걸음, 첫 단계인 것 같아요. 북한은 이런 젊은층에 의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실제로 (들리지 않음).. 것이 보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커져만 갈 거예요. 질문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질문:** 네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연미:** 고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나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 이야기가 유익하고, 또 이런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용기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어떤 어려움들을 직면해야 했는지, 그리고 안전하고 자유로운 곳에 도착해서는 어떤 식으로 적응해 가셨나요?

**박연미:** 어려움이라고 하면 먼저 생각나는 건 몽골에서부터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도착한 날입니다. 처음 도착한 날이었고, 거기서 처음으로 화장실을 갔을 때 처음으로 어렵단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서 뭘 어떻게 할지 몰랐거든요. 손은 씻어야 되는 건지, 여기 화장지는 왜 이렇게 좋은 건지. 그만큼 한 번도... 이 새로운 세상에 대해 아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갔는데 그 나라의 자유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뭘 하는 걸 좋아해요? 좋아하는 게 뭐예요? 어디서 살고 싶어요? 어디를

가보고 싶어요? 그렇게 다들 물어보니까 저는... 왜 그런 걸 저한테 물어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북한에서는 한 번도 자유 의지를 행사한 적이 없어서 그게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었어요. 선택을 내려야 한다는 게요. 그렇게 막 질문을 하니까 저는 아 모르겠다. 그냥 뭘 해야 하는지 말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걸 입어라, 저기로 가라, 이렇게요. 그 부분이 정말 어려웠고, 또 적응하는 과정도 어려웠어요. 한국에서는, 한국은 북한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개방적이지 않아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탈북자들을 차별하고, 저희가 한국 사회를 잘 이해 못하고 노력도 별로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사회주의 사회에서 왔으니까 그런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회가 저희를 굉장히 다른 시선으로 보고 같은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게 처음에 직면했던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셉 김:** 제가 가장 어렵게 느꼈던 건 물론 문화적 차이, 언어 장벽, 그리고 사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건 저만의 비판적인 사고방식을 기르는 것이었는데요, 특히 학교에서 말이죠. 한 번도 주어진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라고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비교적 어릴 때 미국으로 왔기 때문에 언어와 문화, 그리고 동화되고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건 나이 들어서 온 탈북자분들보다는 좀 더 쉽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국에서 공립학교를 다녀서 그게 엄청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왔고, 또 성공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서, 학교도 다닐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도구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박연미:**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에 제대로 답변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직면했던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큰 물결을 목격하고 중국에서는 더 큰 걸 본 것처럼요. 하지만 최근에 이렇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사실 전혀 몰랐던 건, 사람들이 이 이슈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아무도 저희 생각을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사막에 있을 때 들었던 제일 슬픈 생각은 내가 여기서 죽어도 아무도 관심을 가져 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국가였는데, 다른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때 사람들이 저랑 같이 울어 주는 모습을 보고, 왜 이 사람들이 이 이슈에 관심을 가질까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에 대해 관심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북한 정권에서 저를 위험인물 명부에 올렸고, 제 수사관계서 “계속 김정은이 범죄자라고 말하고 다니면 암살 당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보호해 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니 이곳에 인류애가 존재하고, 정의와 연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어도 행복할 것 같아요. 사람들의 관심과 연민은 제가 비록 북한에서 태어나 그 고생을 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운이 따르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합니다. 이렇게 관심과 연민을 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MALINOWSKI 차관보:** 그럼 여기 질문 두 개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지만 그 이상은 시간 관계상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질문:** 네. 간단히 질문하도록 해 볼게요. 그렇지만 오늘 와서 말씀 나눠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슬픈 이야기인데 많은 감정과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사실 굉장히 심층적으로 한반도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이해하는 젊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희망을 가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텍사스주 타일러 시 출신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텍사스주 타일러 사람들 대부분은 북한을 지도에서 찾지도 못 한다는 겁니다. 타일러 출신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셨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저희를 일깨워 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인들은 가끔 우리만의 세상에서 살면서 선진국형 문제에 대해 불평하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심각한 문제와 현실적인 이슈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대변해 줄 사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하셨지만, 조셉 김 씨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 자신을 지지해 줄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조차 깨닫지 못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두 분께서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회에서 젊은 사람들은 변화의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확고하게 믿는 바 중 하나인데요. 그런 맥락에서 두 분의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요술 구슬이 있어 소원을 빌 수 있고, 북한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빌어서 북한에 정보 접근성, 자유와 해방이 찾아온다면, 그리고 그 문이 지금 열려 있는 상태라면 돌아 가지겠습니까? 그리고 만일 지금 돌아가지 않겠다고 어떤 조건이 성립되었을 때 돌아 가지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박연미:**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가끔 북한에 관한 꿈을 꾸니다. 항상 탈출하려는 꿈인데, 깨면 그 지옥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 정도로 그 지옥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국가라고 할 수 없는 곳이죠. 그렇지만 북한이 여전히 그렇다고도 말합니다. 북한의 체제가 아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은 저희와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날이 온다면, 돌아가서 제 친척과 친구들을 꼭 보고 싶습니다. 단, 문제는 지금 북한은 저를 범죄자로 보기 때문에 지금 돌아 간다면 바로 처형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해방이 필요하고 정의가 존재해야만 합니다. 지금과는 상황이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만일 그런 날이 오면 당연히 가서 북한의 고향 사람들을 봐야겠죠.

**조셉 김:** 조금 덧붙이자면, 제가 고등학교 때 ESL(영어 숙달) 수업을 들었는데요. ESL 영어 선생님께서 “나에게 마술적인 능력이 생긴다면 어떤 능력을 갖고 싶은가?”라고 물어 보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투명 인간이 되고 싶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투명해지면 북한이 하루 이틀 내로 개방이 안 된다 하더라도, 몰래 북한에 들어가서 제가 어렸을 적에 같이 운동장에서 축구하며 놀고, 더운 여름날에는 함께 강에서 수영했던 친구들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답변드리자면, 네, 목숨을 잃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다면 꼭 가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갈 수 없는 상황이란 걸 아시겠죠. 그런데 요술을 언급하셨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 같은 건 없다는 건 잘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의 의지와 변화를 위한 갈망을 하나로 모으면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요술보다도 강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질문을 통해서도 저희를 마음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많이 지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엄청난 지원이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국 시민이기는 하지만, 북한 사람으로서도 감사를 전합니다.

**질문:** 이자리에 오셔서 경험을 들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북한은 중국에 여러 면으로 의존하고 있고, 탈북하실 때도 중국이 중요했던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만일 중국 지도자들과 만날 기회가 있다면 북한에 영향력을 어떻게 행사해 달라고 부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난민을 인정하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어떤 요청을 하실 것 같나요?

**조셉 김:** 그런 질문은 킹 특사님께서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웃음.)

**질문:** (마이크 사용하지 않음.)

**조셉 김:** 아니요. 제가 이런 정책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요. 일단, 저는 사실 중국의 정책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도 답변을 드리자면, 중국 지도자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면 좀 근본적인 요청을 할 것 같습니다. 탈북 난민을 북한으로 돌려 보내지 말라는 요청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국의 정책이 어떤지 정확히 모르지만 기본적인 인권 침해로 이어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걸 중단하고, 그런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할 것 같네요.

**박연미:** 제가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 고졸 검정고시를 봤는데, 한 삼년 전쯤 한국의 (들리지 않음)...상이라는 것에 대해 듣게 되었어요. 처음에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인권이 뭐예요?”라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권이란 무엇일까? 제가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고 사람들에게 말한 후에는 사전을 찾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우주, 어떤 하느님이나 하늘이 준 것이고, 그래서 그 어떤 인간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게 인권입니다. 그 후, 사람들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전혀 처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에는 성분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인데요. 정권에서 사람들을 세 계급으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권리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어요.

그리고 중국이 하는 일은...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는 않지만, 북한 사람들을 대신해 말하자면 확연한 범죄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치적 난민이고 북한에 돌아가면 처벌, 처형 당하거나 감옥에 보내진다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국, 중국 정부가 그렇게 막강한가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정부도 우리의 권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인간이고 북한 사람들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확실히 해두면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인권의 정의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다음에 할 말도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정책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정책은 우리가 만드는 건데, 인간이 만드는 건데 왜 인간으로 살기가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죽어 가고, 고통 받으며, 자유를 위해 죽음을 불사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인권을 존중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MALINOWSKI 차관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연미 씨, 조셉 씨, 감사합니다. 방금 주장하신 점은 제가 들은 것 중 인권 옹호에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그러한 사상, 그런 사상의 논의나 인지조차 금지된 나라의 사람이 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천부적인 것이라는걸요.

오늘은 세계 인권의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북한을 집중적으로 다뤘던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이 전 세계에서 인권 증진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시험이자 가장 어려운 도전과제이고, 어쩌면 그렇게 참혹한 상황으로 고통받는 곳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우리 능력에 대한 믿음에도 가장 큰 시험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께서 들으셨던 대로 그렇게 꿈쩍도 하지 않고 오랜 시간 변화에 저항해 온 곳이라 해도 한순간에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미 씨께서 말씀하셨듯이 스스로를 위해 거래를 시작하고 스스로를 위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 작은 행동,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행동조차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각이 시작되고, 독립이 시작되고, 정부에서 저지할 수 없는 어떠한 과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셉 씨, 연미 씨. 이번에 처음 만났는데요. 사실 조셉 씨는 행사 시작하기 바로 전 제 사무실에 찾아왔을 때 전에 한 번 만난 적이 있다는 걸 기억했습니다. 미국에 막 도착했을 때,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셨을 때였네요. (웃음.) 그리고 킹 특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절대로 잊지 못할 겁니다. 저는 정말 잊어버리지 않았었어요. 조셉 씨의 얘기가 정말 뇌리에 남아서 연설문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점은, 일단은 아주 아주 슬프고 어려운 경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던 건, “이 청년이 그 모든 것을 겪고,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그 많은 것을 보고 난 후에도 건강하고 완전한 상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북한 사람들 모두 그러할 것이다”였습니다. 조셉 씨의 이야기는 수백만 북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사실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조셉 씨의 이야기는... 결말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시작에 불과하니까요...

하지만 지금 서 계신 자리와 이루어낸 성과를 보면 북한 사람들도 모두 비슷한 미래를 살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외교 등 국무부에서 하는 일에 초점을 좀 맞추자면, 케리 장관님께서 킹 특사와 제게 압박을 지속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북한 인권에 대한 언급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고, 그 빈도를 높여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사께서 계속하라고, 박차를 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지시를 따를 겁니다.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그 노력은 지속될 것이고 더 많은 관심이 모아질 것입니다. 한국 사무실에서 북한이 저지를 범죄를 하나하나 기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국무부에서 지지했던 유엔 총회 결의안에 대해서도 아실 것입니다. 그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에 회부될 것입니다. 안보리에서 곧 회의가 열리고 거기서도 결의안은 통과될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가 없어질 때까지 안보리 의제로 남아있게 될 겁니다. 즉, 우리와 다른 나라에서도 어떤 사건으로 인해 필요가 생기면 핵문제를 언급하듯 인권 문제를 언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실태에 대해 현재 보유한 정보와 수집 중인 정보를 퍼뜨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화면을 보시면 우리의 웹사이트 [humanrights.gov](http://humanrights.gov) 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을 포함해 앞으로 7 일 동안, 북한에 존재하는 여러 노동 수용소 체계의 시각적 이미지와 거기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그 웹사이트를 통해 집중 조명할 것입니다. 수용소에 대한 정보는 다양한 원천을 통해 수집됩니다. 그 목적은 수용소의 관리책임자들과, 그들을 지휘하는 여러 직책의 지휘관과 관료, 그리고 맨 위까지, 우리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보고 있다.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우리는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요.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북한 체제는 그 존재를 부인하기 때문에 이를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수준에서든 잘못된 것이라는 점과,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나중에라도 그들이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우리가 알고 있다, 이미 늦었다, 더 이상은 숨길 수 없다고 말할 겁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가담하지 마라. 왜냐하면 언젠가는 한반도에 변화가 찾아올 것이고, 우리는 당신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런 행위에 연루되면 좋을 게 없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북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시도할 것입니다. 그 정보가 인권이 관한 것이든, 대서양을 건너는 운나쁜 배에서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든 (웃음), 아니면 지도자를 조롱하는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정보가 정상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 주는 것이고, 사람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들었듯이, 그것이 변화를 야기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언젠가는 북한 사람들이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건 불가피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행동을 취하든 말든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한반도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그 과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그날을 앞당기고, 실제로 그날이 도래하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이미 탈북하여 돌아갈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들이 당당히 그 나라에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도록 도와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